공동체 소식

연중 제6주일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 이번 주간의 축일

- 2/14(화) 성 치릴로 수도자와 성 메토디오 주교 기념일

▣ 주일학교 개학

- 일시 : 2/12(주일) 오늘 교중미사 전, 교육관
- 안내 : 학부모님의 관심과 기도를 바랍니다.

▣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2/18(토) 오후 5:30.

▣ 반모임 안내

- 내용 : 반모임은 반장님의 주관 아래 모임 날짜와 회수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s Call to Share'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 'Stone Chapel' 건물보수공사 기금을 전달하였습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21	511	498	33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정예진 한나	고평원 프란치스코
	김정원 안젤라	
차 주	차민서 임마누엘	이원준 요한
	김정원 안젤라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명은 안젤라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콜라스티카
차 주	김대연 요셉	박희영 카타리나
		최선윤 마리아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화년, 안현숙, 김진미
차 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차 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2/5일	75명	324달러	2,000달러
고영방, 김동술, 김진미, 김호원 김화년, 문석찬, 박동희,이영민, 현교정, 박옥희 (총 10세대)			

연중 제6주일 |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 2017년 2월 12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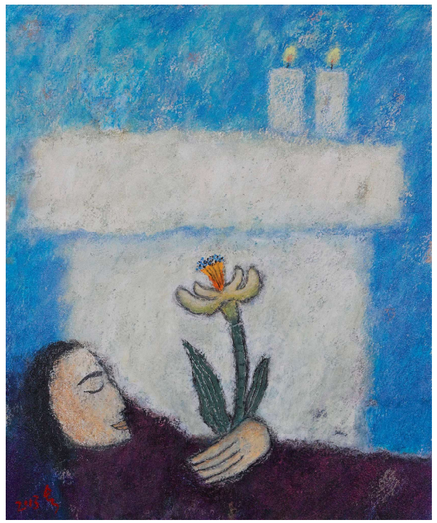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6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법을 넘어서는 완전한 사랑을 가르치시며, 사랑 위에 세우신 새로운 정의로 법의 정신을 밝히십니다. 그리스도교 백성인 우리는 하느님께 완전한 제사를 바치며 복음 정신에 충실하여, 모든 사람에게 화해와 평화의 표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림 묵상

귀한 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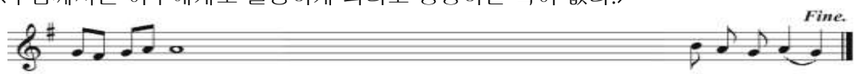
"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마태 5,23-24)

화해와 용서는 작은 죽음입니다. 이를 외면하면 고통을 늘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벗어나 화해와 용서를 감행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하느님은 그들을 귀한 예물로 받아들이십니다.

-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15,15-20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화 답 송 :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

○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

○ 당신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 지키오리다.
제 눈을 열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이다. ◎

○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 저는 끝까지 그 길을 따르오리다.
저를 깨우치소서.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2,6-10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7-37<또는 5,20-22ㄴ.27-28.33-34ㄴ.37>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과 달리,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쉐 마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름길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당신을 버리고 비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하고, 후회 가득한 과거 때문에 힘겨워하며, 불합리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좌절할 때마다 하느님을 원망하며 당신의 뜻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따지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을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1독서는 우리가 암흑의 순간에도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분이 마련하신 십자가를 선택할 자유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곧,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 의지로 주님께서 세상을 끌어가심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의지로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는 이는 세상의 그 무엇도 가져다주지 못할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화답송).

사실, 바오로가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1코린 5,12). 하느님은 아무에게도 당신을 거스르라고,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집회 15,20).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 법규를 따라 살기를 바라고 기다리실 따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은 분명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며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듯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원수를 고발할 수도, 그와 다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복음의 산상설교가 가르치는 대로 산다면 세상에 발을 딛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기에 딱 좋은 가르침입니다.

이런 복음의 가르침은 2독서에서 바오로가 이야기하듯이 분명 세상의 지혜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을 빼앗기지 말고, 남의 것을 빼앗으라고 가르치며, 남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이웃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묵묵히 죽음을 맞았습니다. 당신이 가르치신 바가 참으로 올바르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어리석은 철부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에 관해 바오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이 가르침,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보여주신 이 가르침이야말로 참된 가르침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실상은 온 세상을 지탱하는 가르침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하느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결코 올바로 깨달을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이사 64,3과 65,17을 인용하며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사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철부지, 그리스도인들입니다(복음 환호송).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을 버리고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향한 지름길임을 믿고 "바르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며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고자 합니다(본기도).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바를 믿고 따르는 철부지인 우리들이 바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며,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분의 마땅한 거처, 곧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희망합니다.

- 염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교리산책

'성경' 과 '성전' 의 차이는?

성경(聖經)이 하느님의 말씀을 글로써 기록한 것이라면 성전(聖傳)은 하느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되지 않는 채 구전되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을 쓰도록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2티모 3,16, 2베드 1,19-21) 이 말은 하느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움직이시어 당신이 원하시는 바대로 쓰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 영감설로,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인간의 언어로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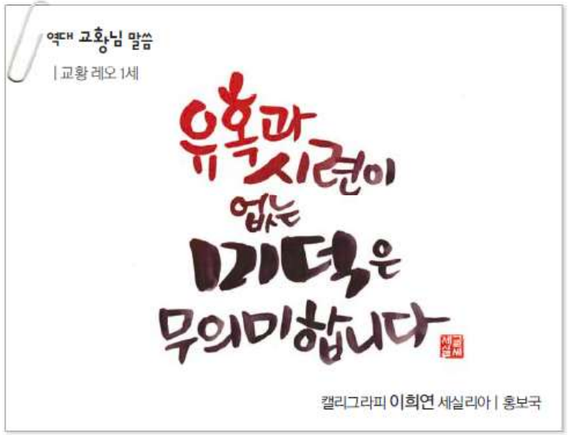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하느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제공합니다.(2티모 3,16-17) 그 살아 있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성경 중 단 한 줄도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이 친히 하신 말씀과 행적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남짓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또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후 20년이 흐르는 동안 예수님을 체험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분의 말씀과 행적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체험하고 목격했던 증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자, 그분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성전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서로 된 것입니다. 성전 즉, 거룩한 전통은 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계시 진리 또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흗날에 되살아나셨습니다."(1코린 15,3-4)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장



복음묵상

사족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렇지만…
그런데…

결국 사과는 했지만
사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만드는 말들.

붙이지 말아야 할 말들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태 5,37)

- 임의준 신부